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다수확품종인 《정옥9》호를 심은 강녕이밭들에 팔죽같은 이삭들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전작으로 밀을 심고 후작으로 강녕이를 심으면 정보당 13~15t의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는데 두벌농사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하시였다.

농장에 새로 배속된 포전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이 부족한 논과 밭들로 이루어진 이곳 농장에서 가물이 지속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어 정보당수확고를 이전에 비해 4배이상 끌어올림으로써 계획을 못하던 고장이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고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기후종토조건에 맞고 수확량이 높은 농작물들을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할수 있는 비결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려는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당중앙의 시험농장이 역시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116

호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재배함으로써 농사에서 종자가 기본이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당일군들이 이 농장을 참관하게 하여 당중앙의 의도대로 종자혁명방침을 결실을 볼 때까지, 알장을 볼 때까지 직심스럽게 관찰하자면 어떻게 루팅해야

하는가를 직관적으로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풍년이 든 농장법에 서있노라니 과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는 구절이 결코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하다고, 신심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레이는 벼바다, 강녕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사회주의 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격방항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다수확품종의 종자

육종과 육성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농장에 네차레나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